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3월 6일(수)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3. 6.(수)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담당자	최우석 과 장(044-203-5150) 장지혜 사무관(044-203-5154)
	산업환경과		정석진 과 장(044-203-4240) 박미령 사무관(044-203-4249)

산업부, 긴급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 점검
-영흥화력발전 현장방문 및 산업계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3월 6일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소재한 유일한 석탄발전소로서 1~2호기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상한제약 발전(출력의 80%)을 시행하는 발전소에 해당한다.

* 영흥 3~6호기는 국내 최고수준의 환경설비를 갖춘 발전소

구분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표준 석탄발전	60ppm	70ppm	12mg/m^3
영흥 3~6호기	**25ppm**	**15ppm**	**5mg/m^3**

○ 점검 결과, 지난 **3.1일~6일간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상한제약 실시 결과, **영흥 1~2호기는 총 2.7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 3.1~6일간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은 총 **22.3톤**

○ 정승일 차관은 영흥발전소 석탄하역 부두에 설치된 **육상전원공급장치,** 탈황설비 등을 살피는 한편, 컨베이어 벨트 등 **석탄 취급설비에 관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 위험설비 점검시 2인1조 근무, 비상정지 스위치 점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커버·펜스 보완, 신입직원 현장 단독작업 금지 등

□ **정승일 차관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재난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더 이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 “최근 3년간 전력공기업이 환경설비 투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25% 이상 감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국민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정차관은 올해 **봄철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추가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❶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실시 중인 **상한제약을 최신 발전기까지 포함하여 60개 석탄 발전소 전체로 확대(현재는 40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확정키로 하고,

❷ **석탄발전소 48개에 대해 계획예방정비**(최소 1주일~최대 45일)를 봄철에 집중 실시함으로써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4개), 사고정지(2개, 태안 9·10호기)**를 포함해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 정지토록 하며,**

- 수도권 유류 보일러 2기도 봄철(3~6월) 전면 가동 중단할 예정임을 밝혔다.

❸ 또한,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의 3/4를 차지하는 황산화물(SOx) 저감을 위한 **봄철 저유황탄 사용확대**(황 함유량 0.54% → 0.4%)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 이밖에 정차관은 연내 환경급전을 본격 도입하고, 전력수급과 계통여건을 감안하여 **노후석탄 6기 폐지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 노후석탄 6기 당초 폐지계획 : 삼천포 1·2(19.12월), 호남 1·2(21.1월), 보령 1·2(22.5월)

○ 충남 등 석탄발전 밀집지역에 위치한 **발전소 대상으로 과감한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올해 말 9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산업부는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미세먼지 4대 다(多)배출 업종(제철,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업계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청취하고,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방지시설 효율개선, 연료혼합비율 변경 등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공정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장지혜 사무관(☎044-203-5154), 산업환경과 박미령 사무관(☎044-203-42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